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sup>44</sup>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눅4:38-44)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sup>38</sup>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sup>39</sup>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sup>40</sup>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sup>41</sup>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sup>42</sup>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sup>4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질병은 영적 삶과 관련된 해롭고 악한 것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교회와 인간들에게 붙어 그들을 영적 죽음으로 이끄는 다양한 종류의 악과 거짓들을 몰아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와 천국의 상태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은 주로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은 그것을 뜻한다.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sup>5</sup>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11:4-5) (AC.8364:6)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364번 글 6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눅4:38-44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As diseases represented the hurtful and evil things of the spiritual life, therefore by the diseases which the Lord healed is signified liberation from various kinds of evil and falsity which infested the church and the human race, and which would have led to spiritual death. For Divine miracl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miracles by the fact that they involve and have regard to states of the church and of the heavenly kingdom. Therefore the Lord's miracles consisted chiefly in the healing of diseases. This is meant by the Lord's words to the disciples sent by John:*

***Tell John the things which ye hear and see: the blind see,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rise again, and the poor hear the gospel (Mat t. 11:4, 5).***

이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에 관한 주석 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All the disease that I have put on the Egyptians, I will not put upon thee.)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특별한 점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 38,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up>38</sup>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sup>39</sup>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하신 것이지만, 속뜻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성 가운데 계시다 의지 안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회당은 신앙인의 이성을 뜻하며, 집은 의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본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내면에서 주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시는 곳, 즉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사람의 의지 속에 세워집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면에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의도하고, 삶으로 옮길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뜻하는 시몬의 장모가 시몬의 집에

기거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의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 병이 들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보통은 신앙인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 헤어 나오지 못할 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그 거짓을 믿을 때 교회는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는, 신앙인들이 어떤 종류의 악이나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를 위하여 구합니다. 말씀에서 사람은 보통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진리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 질병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주십니다. ‘꾸짖으신대’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대신해 악들과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꾸짖으시자 악한 영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시몬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께 ‘수종드니라’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수종을 드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병에 낫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악과 거짓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악을 거절할 힘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교회가 진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것을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40</sup>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 질 무렵은 어떤 때입니까? 신앙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때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일 때가 있고요, 한낮일 때가 있고요, 저녁일 때가 있고, 밤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처럼 햇빛이 밝을 때는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넘칠 때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때입니다. 지혜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질 무렵은 시험의 기간이며, 영적 질병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본문에서 해 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직면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애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애정의 다양성에 대해 성(聖) 문서에서는 수만,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또는 수만 곱하기 수만 개만큼이나 많다고 말합니다. 사람 얼굴의 생김새가 모두 다른 것처럼, 각자의 애정이 모두 다르고, 그러므로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영적 질병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치유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려 해도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부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치 몸 안의 혈액이 각 장기와 조직과 세포 속을 원활하게 흐를 때 병이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p>41</sup>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병자들의 내면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향해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고백은, 순수한 고백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혐오이며 적대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문인지 주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심지어 대체사장 가야바가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도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네가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악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더럽히거나 파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폭행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인들이 진리에 접근하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42, 4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sup>42</sup>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sup>4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조금 전에 ‘해 질 무렵’이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날이 밝으매’는 무슨 뜻입니까? 날이 밝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빛이 흘러들어 오는 영적 상태이며, 그래서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 번역은 ‘황무지’ 또는 ‘사막’입니다. 황무지는 진리가 없고, 그러므로 선한 삶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날이 밝은 것과 황무지의 상태는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날이 밝았을 때 황무지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 내면의 황무지를 진리로 개간하시는데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옥토로 변한 곳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황무지와 같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데, 다른 어떤 면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황무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날이 밝았을 때 주님께서 황무지에 가신 것은, 주께서 사람의 내면 어떤 부분을 치유하신 후에, 이번에는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서서 그곳을 다시 변화시키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던 무리가 주님을 발견하고는 떠나지 마시라 붙잡습니다. 주님을 찾는 무리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재(不在)를 느낄 때,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되 스스로 하듯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교리적인 답변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동네는 교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동네’**는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 특별한 교리적 해법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다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특별한 진리를 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향해 뿌리를 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원천이신 주님께 닿으려는 수많은 뿌리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오신 주님은,

사랑 자체인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진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에서 나오는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고, 선을 동반한 진리입니다.

**44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끝으로 44절에서는 주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방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며, 가장 나중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 그곳이 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갈릴리는 걸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것’**은 앞에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걸 사람 안의 여러 애정과 소통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

눅4:38-44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다’

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역시 거듭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치레를 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열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들의 의지 속으로 오십니다. 영적 질병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소상하게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문제를 소상하게 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증언부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질병을 치유 받으려고 주님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시몬의 집에 있던 무리들이 장모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병의 원인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신앙인의 질병은 각자의 애정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질병들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17:14)

아멘

원본

2017-09-10(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31(D7)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